

나를 남은 '세월호 3법' 약속 지켜질까

특검 유가족 참여 문제 이전 여전

조사위원장 선임 방법 쟁점 부상

정부조직법·유병언법도 난항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타결 시점인 이번 달 말까지 26일로 닷새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밤 늦게 3차 협상에 나서 결렬이 주목된다.

법안을 처리하고자 국감 기간에도 양당은 TF 회의를 하는 등 유익적으로 임했으나 쟁점별 의견 차이가 커서 월내 일괄타결이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TF는 지난 22일에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타결 회의'를 해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은 없었다. 애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느냐였으나 이날 협상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위헌 의견이 달라 논의도 안 됐을 뿐더러 진상조사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인선 등도 얽혀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원주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회 17인 중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위원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합의한 대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정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쟁점 외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조문 작업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날 밤 협상에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TF측 관계자는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마지막 쟁점 한두 가지만 남은 상태라 당장 내일이라도 (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야가 특검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 문제를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말하면 여야가 좁힐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좁힌 것이 아니겠나"라며 "(양당 지도부에) 내용이 보고됐을 것이고, 남은 건 결단"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막히면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의 처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세월호 3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양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TF 회의를 열었으나 해양경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정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골자만 점검했을 뿐 양측의 견해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돌아섰다.

유병언법은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마친가지다.

여야는 이날 밤 회의에서 최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좀처럼 의견 일치가 안 되는 핵심 쟁점은 그 공을 '뒷선'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마치고 나온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결국 꼭지는 다른 층에서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 간 담판의 필요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김영록 의원 **국감 인물** 새정치 이기호 의원

정부 재정·세제·금리 정책 문제점 추궁 '과학기술 지방화' 실상 파헤쳐

대기업 감세·한은 총재 독립성 등 따져 광주·전남 소외정책 전환 촉구

19대 국회 하반기에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이 국정감사에서 정부 재정과 세제, 금리 정책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등 재선 의원으로서 만만치 않는 내공을 과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국내 3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 감세 논란의 포문을 연데 이어 지난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로부터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우려 표명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채권시장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부 측이 즉각적인 분회의 통과를 강요하는 30개 법안 가운데 단 3개만이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질타, 국감장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제 38%, 지방세 62%이나 담뱃값 인상 이후 국제 56%, 지방세 44%로 역전돼,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한 편법 증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담배세 인상은 국민 흡연을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이는 건강 부담금 대부분은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적자 보전에 쓰인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내 배후값이 매년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김치가 매년 22만톤, 국내 소비량의 20%가 무차별 수입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의 통관절차 간소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검역 검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쌀 관세율과 관련, 김 의원은 513% 관세율을 정부가 임의로 하향 조정하지 못하도록 관세율 조정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이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에 여야 의원들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30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기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지방화'를 화두로 광주·전남지역 소외 실상을 파헤치고 정부 측에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미래부 산하 위원회의 참여 교수 가운데 호남지역 비율은 4.5%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4개 위원회는 지방대학 교수가 한 명도 없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위탁연구사업 실적 분석 결과, 수도권 및 대전지역 수탁율이 63.5%인 반면, 호남은 2.8%에 불과하다고 지적, 관계자들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17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방사선 의료 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중국 동해안의 원전 급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동남권 분원에 이어 전남에 서남권 분원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미래부로부터도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이 의원은 22일 KBS 국감에서 "김구는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하던 사람이라는 이인호 이사장의 주장은 충격적"이라며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 자력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 이 이사장의 '친일역사관'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전남의 미래전략산업인 영광의 'e-모빌리티(전기구동 이동수단)', 장성의 '나노산업' 등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헛돌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화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 지방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우윤근, 진도 팽목항 실종자 가족 만나 겨울철 수색방안 논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 10여명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겨울철 실종자 수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우 원내대표는 팽목항에 있는 하늘나루 우체통에 보낸 편지에서 "너무도 슬픈, 너무도

아픈 사연에 너도나도 울었지만, 이제 흐르는 세월 앞에 자꾸 잊혀려 한다"며 "잊지 않겠다는 나 스스로 다짐을 위해 새벽, 팽목항으로 가기 전에 쓴 편지를 쓴다"고 말했다.



김동철·산업위원들 광주 산단 기업대표 등 애로 청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24일 광주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을 시찰하고 산단 관계자, 기업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 새누리당 김경우·김동완·정두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박원주·부좌환·이원욱·추미애,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맨 먼저 평동산단 내 생활기전 업체인 DK산업(주)에 도착, 임영일 광주시 일자리투자정책국장으로 부터 평동산단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어 DK산업 김보근 대표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대표는 "올해 정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

(ATC)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며 "지역 중견기업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데도 당장 연구개발 수준이나 시장조사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ATC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이후 한국광기술원과 시추설비 제작회사인 (주)한진D&B(대표 한문석)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와 한 대표 등으로부터 현황보고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주승용 "광주·전남 순직 공무원 연금 급여 탈락 재검토를"

국회 안전행정부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연금 급여심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된 전남도청의 고(故) 최태수 사무관과 광주 광산경찰서 고(故) 신중환 경사의 심의 과정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사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최 전 사무관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6개월간 순천만조작위원회에 파견돼 눈을 개간해 정원으로 만드는 실무를 총괄한 후 올해 2월 전남도청 산립과로 복귀했으나 1주일만에 급성골수구성백혈병이 발병, 3개월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이 공무원양양비(공무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신 전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용의자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자 2002년 10월 퇴직하고 투병을 하던 중 올해 9월8일에 사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신 전 경사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 전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용의자량을 추격하다가 순찰차가 뒤집히면서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자 2002년 10월 퇴직하고 투병을 하던 중 올해 9월8일에 사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신 전 경사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승남 "한-중 카페리 평균 선령 21년8개월 노후화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지난 2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항여객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중 카페리선박의 노후화 및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적극적 접촉을 통해 선박의 특별점검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한-중 카페리 선박은 총 16개의 항로에 16척이 취항 중이며 이

카페리의 평균 선령은 21년 8개월에 달하고, 25년이 경과한 카페리도 5척이나 된다. 한중카페리 선박은 모두 1만 2000톤에서 3만톤급 대형여객선으로 세월호(6825톤)의 두 세배나 된다. 김 의원은 "중국카페리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점검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오병윤 "고속도로 버스 뒷좌석 10명중 8명은 안전벨트 안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운전석 안전벨트 착용율은 86.7%, 조수석은 79.1%, 뒷좌석은 19.4%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10명중 3명(33.6%)만이 유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39.4%였다. 10년 전 11.6%였던 착용율이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여전히 교통안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 법: 백 현 교수 중개법: 홍덕기 교수 공법: 이강열 교수
 학개론: 임진택 교수 공시법: 안규재 교수 세법: 임기원 교수

개강 11월 10일 주부반 11월~12월 기출과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인반 인디언 동영상 수업은 무료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최고의 교수진으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합격률 1위

합격률 1위

광주세무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 학원 홈페이지 방문주소 경북 광주세무행정고시학원 • 학원카페 다들가까 검색창: 광주세무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NAVER *가장많은* 단비플라워 *을 선보입니다*

단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자산건전성 8년 연속 1등급 달성!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최저 연 3.5%~

햇살론 대출 최고 2천만원 **신용대출** 최고 1억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최고 80%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총장지점 223-7217 223-7218

대인본점: 전남고흥, 구도성, 밀리요리, 대인생명, 대인마을소, 대인광장, 대인광명, 유동

총장지점: 구도성, 총파, 우리은행, 삼성생명, 영터극장, 광주일고, 유동, 누문동